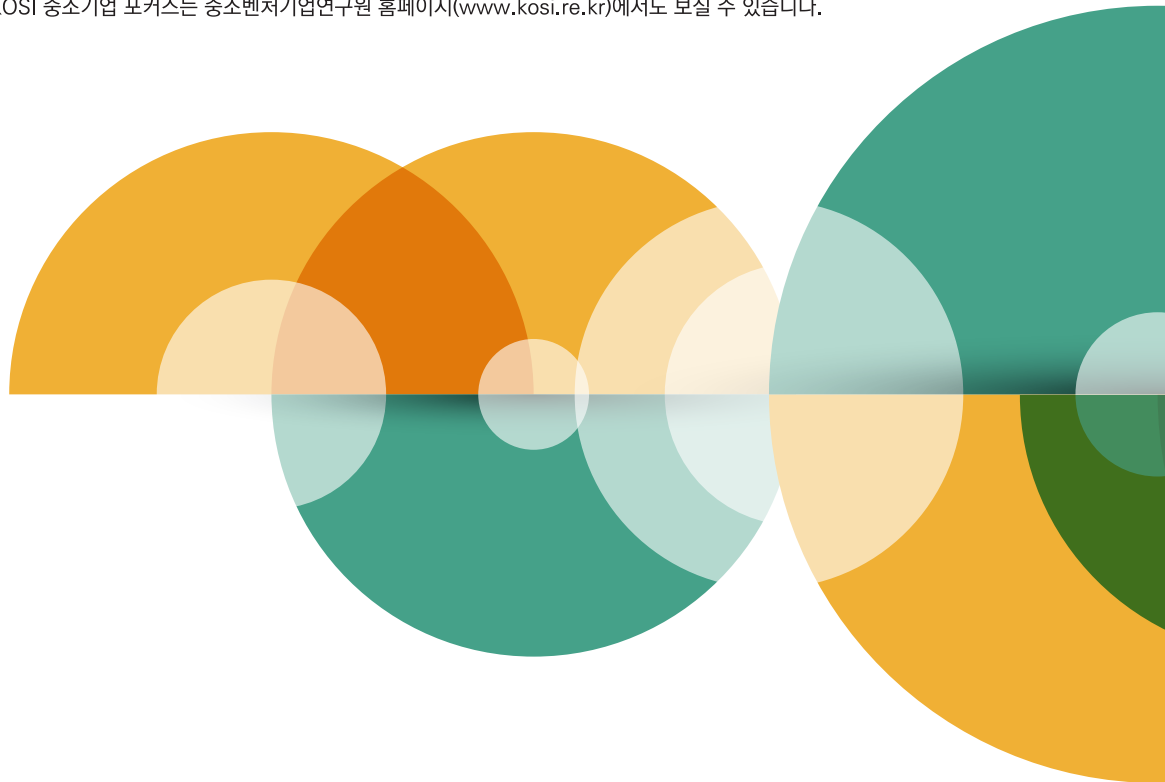


KOSI 중소기업 포커스

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위상 진단과 정책 방향

책임작성 | 박재성 연구위원(02-707-9830, jspark@kosi.re.kr)

※ KOS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홈페이지(www.kosi.re.kr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

| 목 차

1. 서론
2. 글로벌 스타트업 현황과 국내 비중
3. 상세 분야 현황
4. 결론

| 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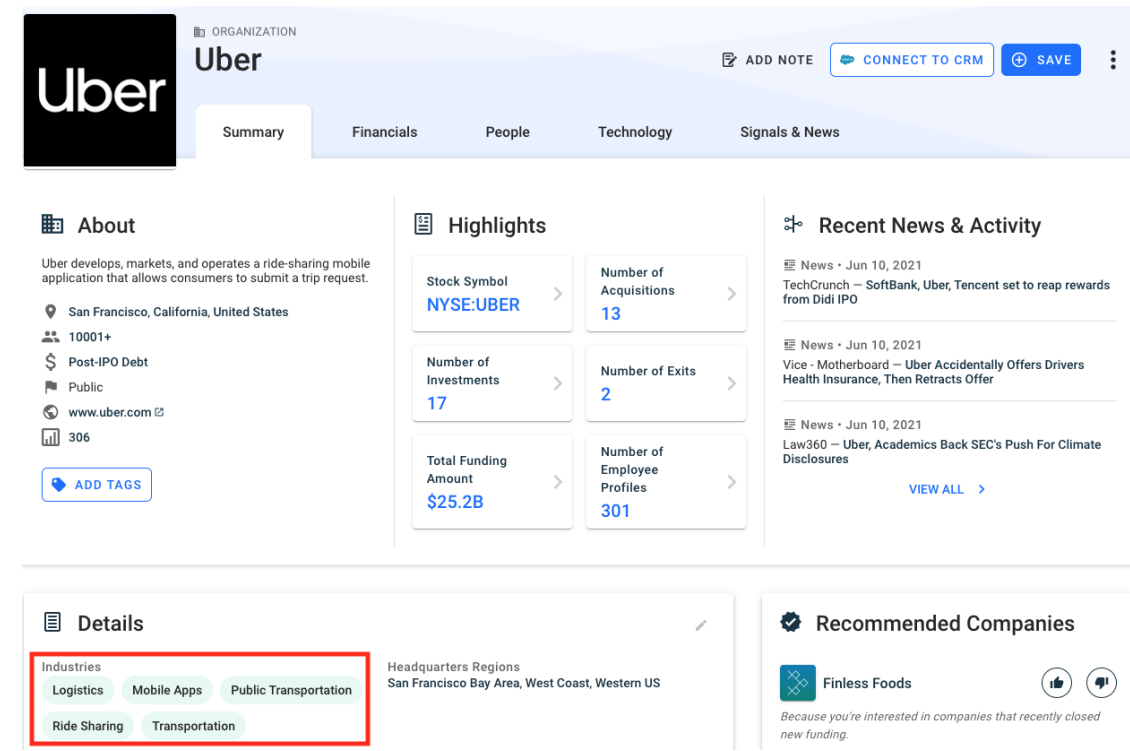
- 스타트업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인 크런치베이스 (Crunchbase)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위상을 평가하고, 정책 과제를 도출
 - 크런치베이스에서 기업별로 정의하고 있는 “사업 영역 태그”를 사업 영역을 구분하는 항목 집합(Itemsets)으로 보고, 항목집합 간 연관성을 연관규칙분석(Association rule mining)으로 분석
-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가장 큰 취약점은 글로벌 지향적 개방성의 부족으로 글로벌 연결성과 글로벌 접근성 제고가 중요하며, 이를 위해서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위상 파악이 전제되어야 함
- 크런치베이스에 수록된 글로벌 스타트업에서 한국의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~ 2019년 기준 약 1.0%
- AI, iOS, IT 분야 등에서 국내 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, SW, E-Commerce 등에서의 비중은 감소
 - (Artificial Intelligence) 국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IT-ML-SW 및 ML-SaaS 분야에서 인도, 이스라엘 기업의 비중과 비교하여 작음
 - (iOS) 국내 기업은 2010년 ~ 2014년 iOS 및 Android의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였으나, 2015년 ~ 2019년 비중이 크게 감소함

- (Information Technology) 전통적으로 미국, 일본 기업의 수가 많으며, 국내 기업은 최근까지 꾸준히 일정 비중을 유지함
 - (Software) IT 및 SaaS와 연계된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비중은 영미권은 물론 프랑스, 독일, 인도, 중국 기업의 비중에 비해서도 작음
 - (Financial Services) 국내 기업은 FinTech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, 2015년 ~ 2019년 이 분야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함
 - (Health Care) 국내 기업은 Medical Device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, 펀딩액 규모는 최상위 기업 대비 1% 수준에 못 미침
 - (Energy) 국내 기업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 상위권에 없으며, 최상위권에는 영미권 기업이 위치
 - (Fashion) 미국, 영국, 네덜란드 등의 기업이 주도하나, 펀딩액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이 최상위에 위치
- AI, iOS(Android), SW와 같이 글로벌 스타트업의 활동이 왕성한 분야에서 국내 스타트업 비중은 답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 분야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
 - IT 분야는 기업 수로는 타 분야 대비 국내 스타트업의 비중이 큰 편이나, 펀딩액 규모에서 차이가 커 적극적인 스케일업 필요
 - 글로벌 스타트업 중 Health Care 및 Biotechnology 분야의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, 이 분야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스케일업 촉진 필요
 - Energy 분야의 경우 “그린 뉴딜”과 같은 정책 추진에도 Renewable Energy, Solar 분야의 주목할 만한 국내 스타트업이 없다는 점에서 Energy 분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
 - Financial Services 분야는 국내 스타트업이 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주력
 - Fashion 분야는 국내 스타트업이 Lifestyle, Retail 분야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, 기존 산업과 결합한 스타트업의 육성을 모색

1. 서론

- 본 보고서는 스타트업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인 크런치베이스(Crunchbase)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위상을 평가하고,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
 - 크런치베이스는 멀리 18세기에 설립된 기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212개국에서 약 98만 건의 스타트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
 - 본 보고서에서는 이 중 2000년에서 2019년에 걸쳐 약 69만 건의 기업 자료를 분석
- 크런치베이스에서는 분석 대상 기업의 사업 영역을 아래 그림의 붉은색 박스와 같이 구체적 사업 분야를 나타내는 태그(tag)로 제시
 - 차량 공유업체 UBER의 경우 Logistics, Mobile Apps, Public Transportation, Ride Sharing, Transportation 등으로 사업 분야를 정의

[그림 1] Uber 사업 분야 예시



자료 : 크런치베이스(Crunchbase)
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크런치베이스의 자료를 가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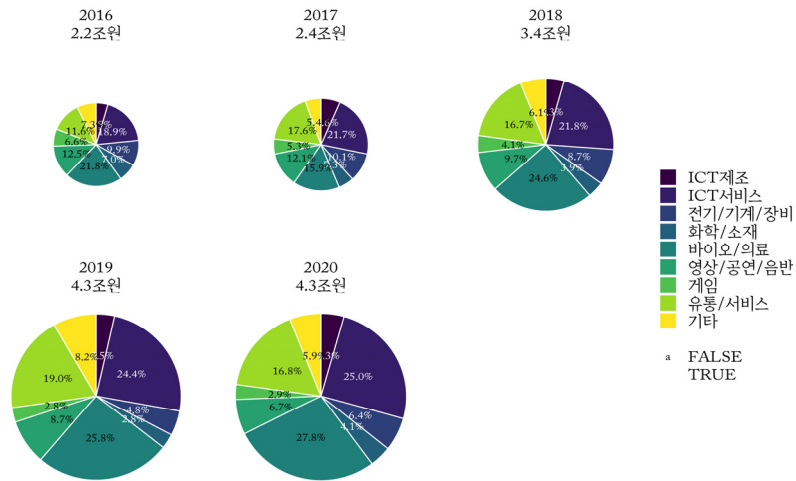
- 기업별로 정의하고 있는 “사업 영역 태그”를 사업 영역을 구분하는 항목집합 (Itemsets)으로 보고, 항목집합의 연관성을 연관규칙분석(Association rule mining)을 통해 분석
 - 연관규칙분석은 각각의 거래(Transactions, 이 경우에는 기업정보)에 포함된 항목집합(Itemsets, 이 경우에는 사업 영역에 대한 태그)을 이용하여 항목집합의 발생 규칙을 도출
 - “{사업A, 사업B} => {사업D}”와 같은 규칙은 사업 영역으로 사업 A와 사업 B를 포함하는 기업은 사업 D도 포함한다는 의미로서 이 같은 사업 간 연관성을 이용하여 규칙을 도출하고, 각각의 기업이 어떤 규칙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기업을 유형화

- 위의 연관규칙분석을 통해 상호 관련성이 큰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사업 유형을 분류
 - 본 분석에서는 사업 항목 간 연관성에 따라 총 15개의 사업 유형이 도출되나, 이 중 글로벌 스타트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국내 정책상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서 AI(Artificial Intelligence), iOS, IT(Information Technology), SW(Software), E-Commerce, Financial Services, Health Care, Biotechnology, Energy, Fashion 등 10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분석¹⁾

- 이 같은 분석은 ICT, 바이오/의료, 기계/장비, 화학/소재, 유통/서비스 등으로 구분하는 기존 벤처기업 업종 분류보다 훨씬 생생하게 스타트업 사업 현황을 제시
 - 현행 분석은 제조업 산업 분류의 성격이 크며, 분야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스타트업의 업종 유형을 적절히 대별하기 힘들
 - 스타트업 사업 분야에서 AI(Artificial Intelligence)가 중요함은 의심할 바 없지만, 현행 업종 분류에서는 이 분야가 어디에 속하며, 어떤 사업들과 관련되는지 알 수 없음

1) 69만 건의 기업 자료 중 규칙의 발생 빈도가 최소 0.1% 이상이고, 최소 두 항목으로 규칙이 생성되며 규칙이 생성되는 강도(규칙을 만드는 선행조건에서 규칙을 이루는 항목집합이 차지하는 비중)가 0.3(30%) 이상인 경우로 분석대상을 한정. 따라서 사업 분야가 단일한 항목(single item)으로 정의되거나, 희귀한 항목으로 구성된 경우 분석에서 제외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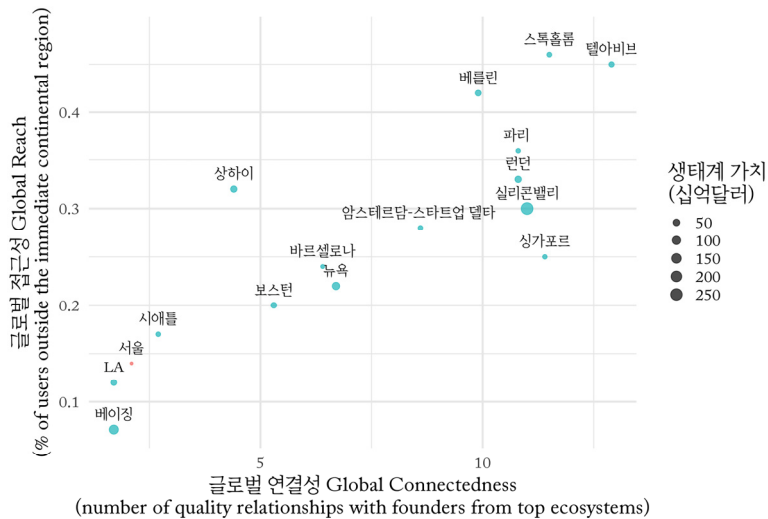
[그림 2] 벤처기업 업종별 신규 투자



자료 : KVCA 2021 Yearbook

-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가장 큰 취약점은 글로벌 지향적인 개방성의 부족으로 스타트업과 벤처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연결성과 글로벌 접근성이 중요
 - 글로벌 연결성과 글로벌 접근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위상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며, 본 연구는 이 같은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

[그림 3]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연결성과 글로벌 접근성(2017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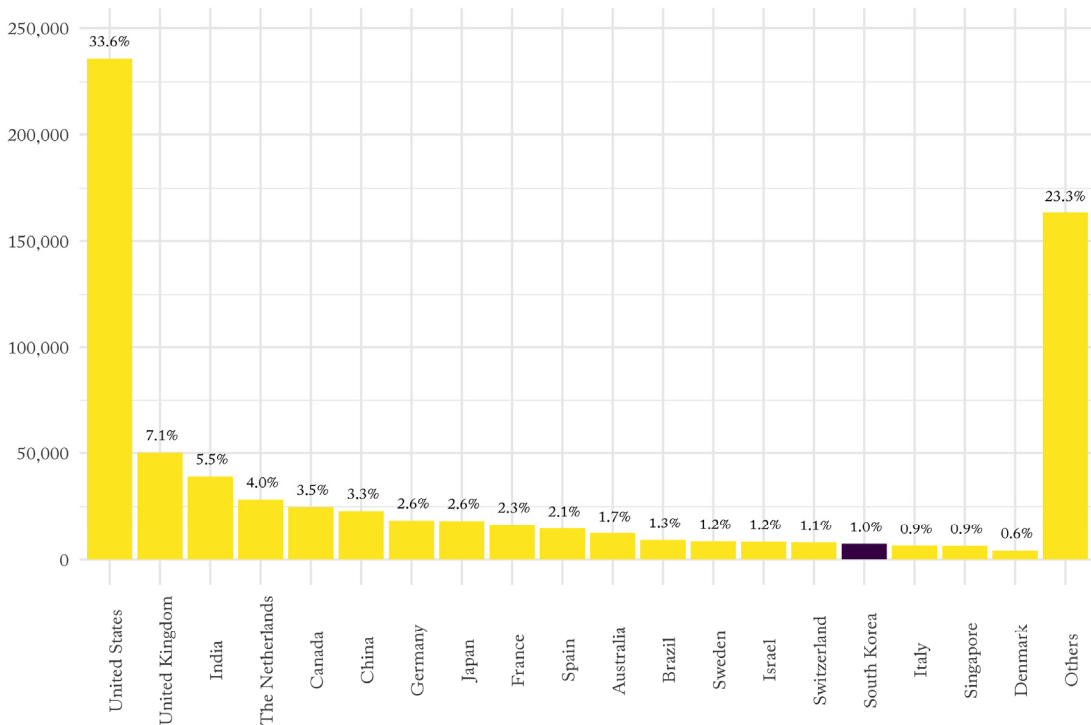
자료 : Startup Genome(2018)

2. 글로벌 스타트업 현황과 국내 비중

■ 크런치베이스에 수록된 글로벌 스타트업에서 한국의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~ 2019년 기준 약 1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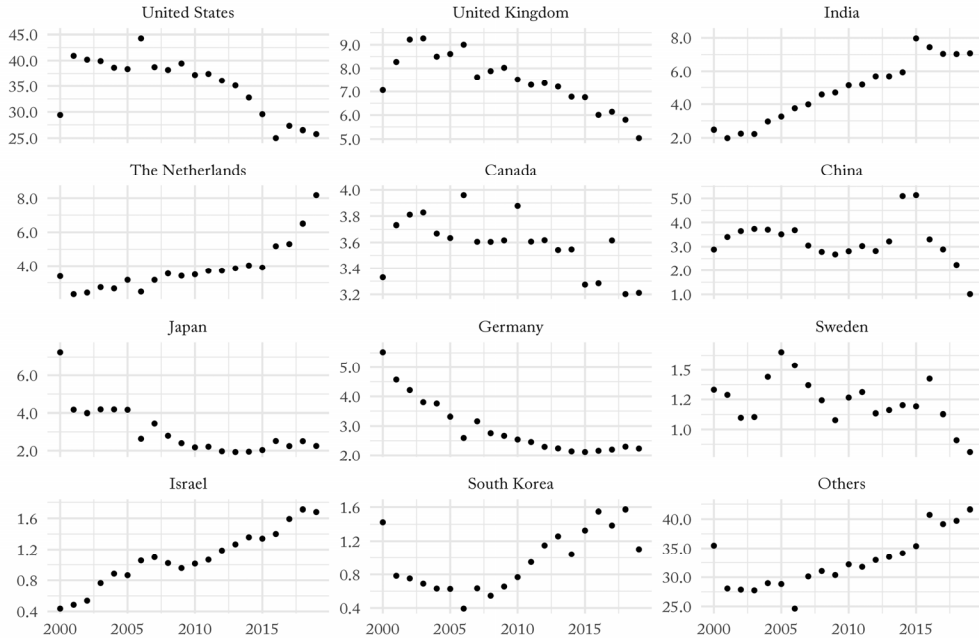
-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으며(33.6%), 다음으로 영국(7.1%)과 인도(5.5%) 순
- 중국이 3.3%로 네덜란드, 캐나다에 이어 6위
 - 크런치베이스에서는 본사 소재지(Headquarters Location)를 기준으로 글로벌 스타트업의 국적을 구분

[그림 4] 국가별 스타트업 수 비중



■ 미국, 영국, 캐나다, 일본, 독일, 프랑스 등의 스타트업 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, 인도, 네덜란드, 이스라엘, 한국, 여타지역(Others)의 스타트업 수 비중은 증가 추세

[그림 5] 주요국 스타트업 수 비중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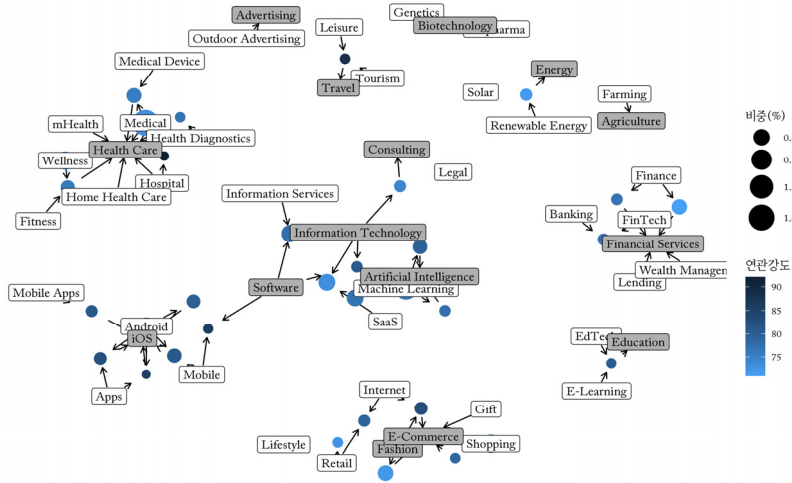


■ 연관성에 따라 도출된 글로벌 스타트업의 주력 사업 분야는 타 분야 및 하위 상세 분야와 연관되어 특정 사업 분야를 형성

- AI(Artificial Intelligence)는 IT(Information Technology), SW(Software)를 거쳐 연결되며, ML(Machine Learning)과 밀접히 관련됨
- Health Care의 경우 Hospital, Mobile(mHealth), Home, Diagnostics, Fitness, Device, Wellness 등과 연계하여 각각 특정한 분야로 구분됨²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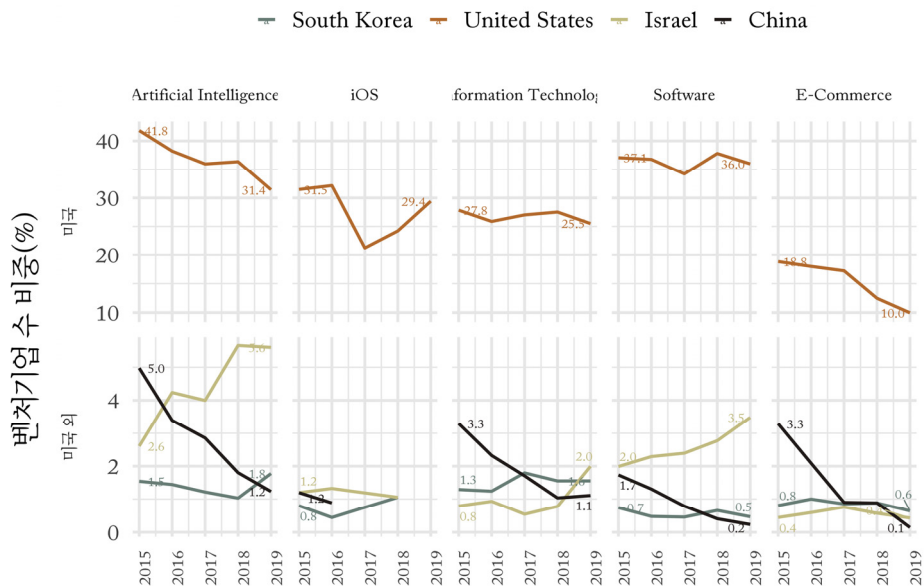
2) 아래 그림의 스타트업 주요 사업군은 사업 항목 간 연관성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규칙이 생성되는 강도가 0.7 이상인 경우로 대상을 한정. 이하 절에서 주요 분야는 가급적 각 분야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규칙이 생성되는 강도를 0.3 이상으로 설정하나, 상세 분야는 각각의 분야의 고유한 특징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규칙이 생성되는 강도를 0.7 이상으로 설정. 또한 상세 분야에서는 "IT-ML-SW => AI"와 "IT-ML => AI"와 같이 항목 집합이 중첩되는 규칙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이 중 가장 상세한 규칙을 대상으로 분석.

[그림 6] 글로벌 스타트업 주요 사업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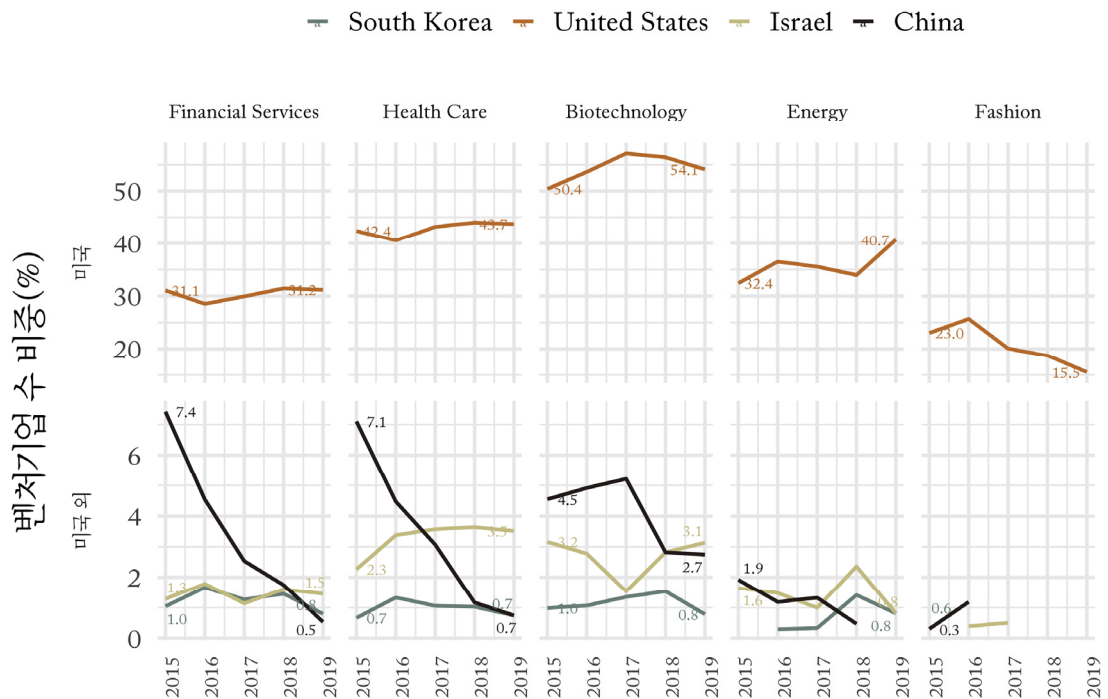
- AI, iOS, IT 분야 등에서 국내 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, SW, E-Commerce 등에서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
 - 이스라엘은 AI, IT, SW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, 중국 기업의 비중은 전 분야에서 2015년에 정점을 기록
 - 이스라엘과 비교, AI, SW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비중은 격차가 큼

[그림 7] 국가별 최근 5년간 주요 분야의 창업 스타트업 수 비중(1)



- Health Care와 Biotechnology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비중은 이스라엘 기업 비중의 1/4 수준이며, Financial Services의 비중도 감소세
- Energy 분야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 분야의 글로벌 스타트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%에 못미침
 - Fashion 분야에서는 2015년 국내 기업이 약 0.6%의 비중을 차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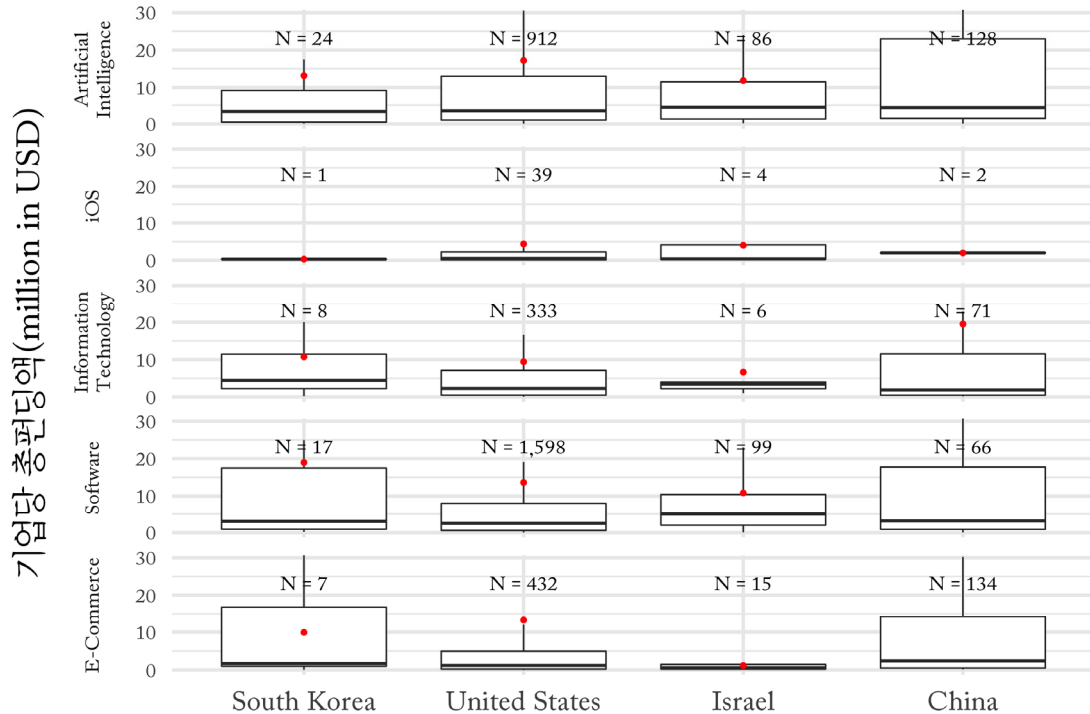
[그림 8] 국가별 최근 5년간 주요 분야의 창업 스타트업 수 비중(2)



- 한국은 중국과 같이 전 분야에서 기업 간 펀딩액³⁾의 격차가 큼
 - 상위 25%에서 하위 25%간 범위(IQR; Inter-Quartile Range)가 상대적으로 큼
 - 타국가 대비 기업 수는 작으나, 중앙값과 평균은 커 펀딩액이 큰 소수 기업의 영향이 큼
 -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기업 수가 많고 중앙값과 평균이 작아 펀딩액이 작은 기업들의 영향이 큼
 - 중국은 소수 기업의 펀딩액이 매우 커 펀딩액 평균은 그림의 범위를 벗어남

3) 크런치베이스에 수록된 모든 기업이 펀딩액(Total Equity Funding Amount)을 공개하지는 않으며, 본 연구의 분석도 공개된 펀딩액만을 대상으로 삼음. 즉 펀딩액에는 다수의 결측치가 있음. 이하 상세 분야 분석도 동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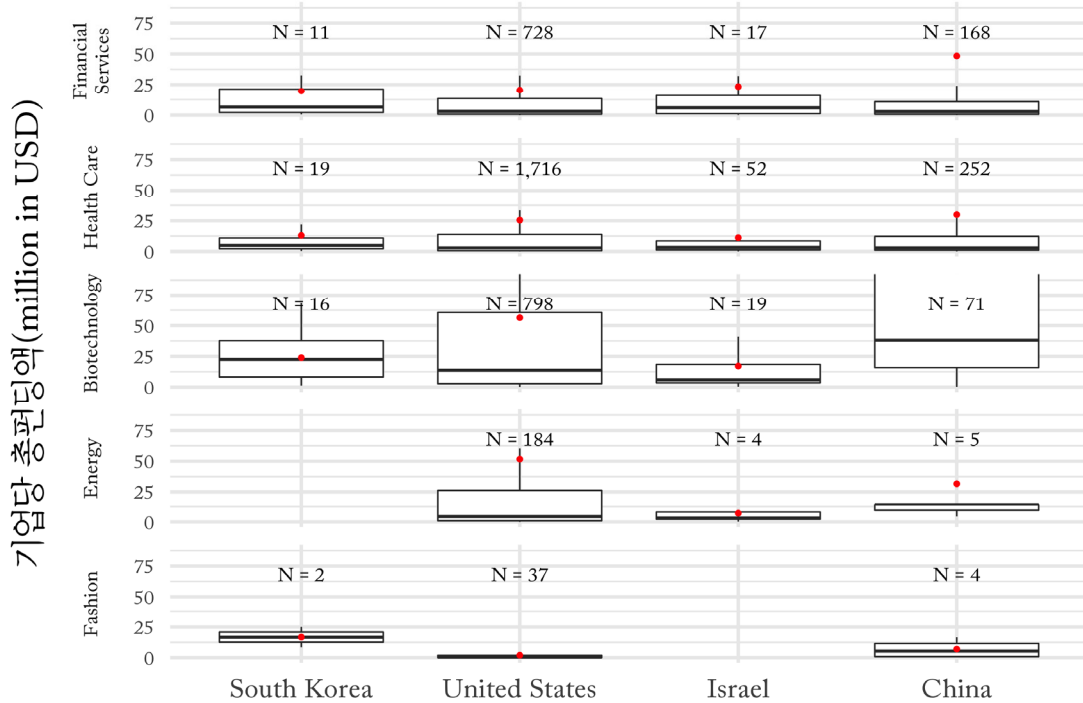
[그림 9] 국가별 최근 5년간 주요분야의 스타트업당 펀딩액 분포(1)



주 : McGill, Tukey, and Larsen (1978) 박스플롯(boxplot)으로 총 펀딩액의 분포를 표시함. 박스의 가운데 선은 중앙값(median), 빨간 점은 평균(mean)임, 박스의 폭은 분포의 25%째 순위와 75%째 순위 사이의 범위(interquartile range)를 나타내며, 박스의 위 아래 수염(whiskers)은 이 거리의 1.5배 이내에 있는 관측치의 위치임. 극단치(outliers)는 표시하지 않음.

- Financial Services 분야에서는 한국의 펀딩액 중앙값이 가장 크나, Health Care와 Biotechnology 분야에서 미국, 중국 등과 비교하여 기업 수가 작으며 평균도 작음
 - Financial Services 분야에서는 펀딩액이 큰 기업이 많으나, Health Care와 Biotechnology 분야에서는 대부분 펀딩 규모가 작음
 - 미국과 중국은 기업 수가 많으며, 평균도 커, 일부 기업의 펀딩 규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음
- Energy 분야에서는 기업 수와 펀딩 규모면에서 미국이 이 분야를 주도
 - 본 연구의 연관규칙분석에서 펀딩 규모가 공개된 국내 기업은 없음
- Fashion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의 펀딩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나 기업 수는 작음

[그림 10] 국가별 최근 5년간 주요 분야의 스타트업당 펀딩액 분포(2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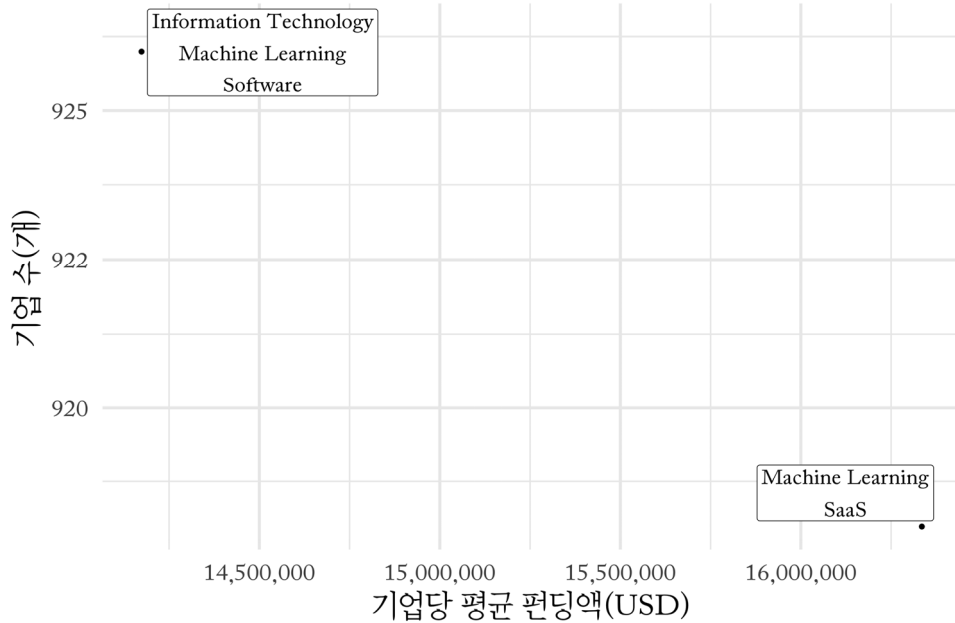
주 : McGill, Tukey, and Larsen (1978) 박스플롯(boxplot)으로 총 펀딩액의 분포를 표시함. 박스의 가운데 선은 중앙값(median), 빨간 점은 평균(mean)임, 박스의 폭은 분포의 25%째 순위와 75%째 순위 사이의 범위(interquartile range)를 나타내며, 박스의 위 아래 수염(whiskers)은 이 거리의 1.5배 이내에 있는 관측치의 위치임. 극단치(outliers)는 표시하지 않음.

3. 상세 분야 현황

가. Artificial Intelligence

- (개관)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에서는 IT(Information Technology), ML(Machine Learning), SW(Software)와 관련된 분야의 기업 수가 많으며, ML, SaaS(Software as a Service) 분야의 기업당 펀딩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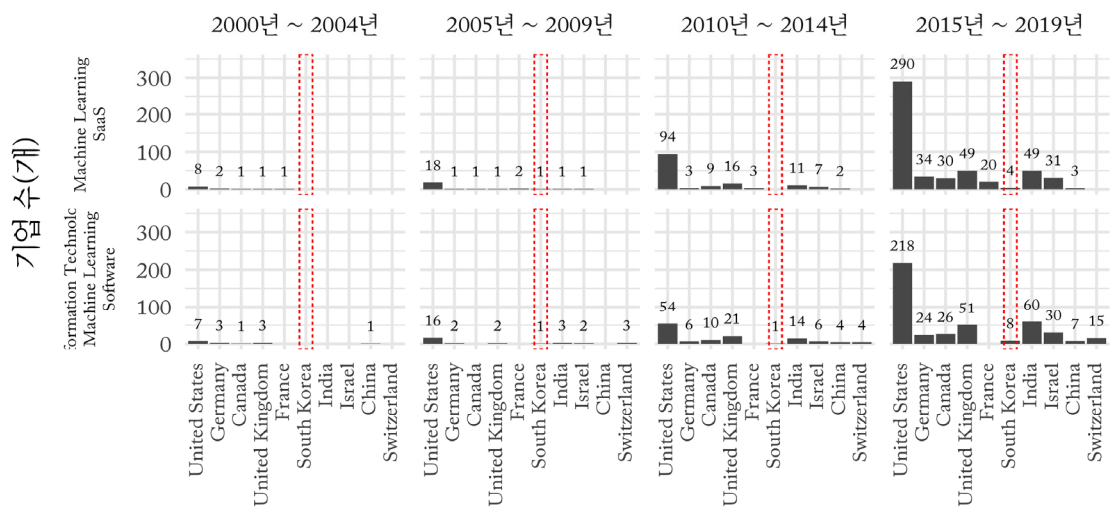
[그림 11]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의 펀딩 규모와 기업 수



■ 국내 기업은 IT-ML-SW 및 ML-SaaS 분야에서 모두 활동하고 있으나, 2015년 ~ 2019년 인도, 이스라엘 등과 비교하여 비중이 작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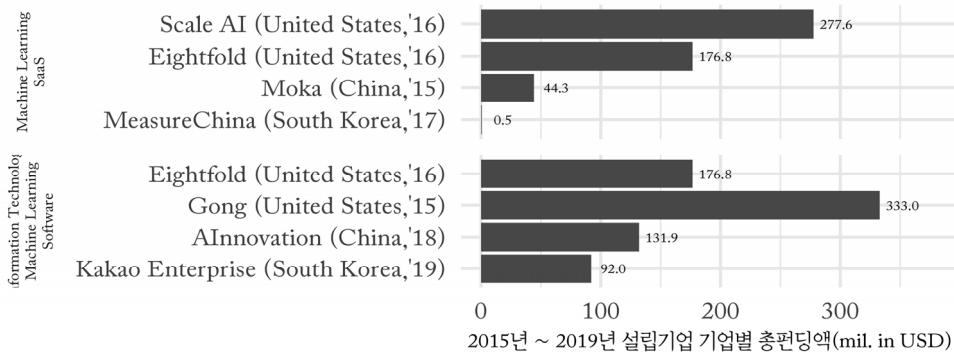
- 중국과 비슷한 수준

[그림 12]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의 국가별 주요 스타트업 수



- 펀딩액 규모⁴⁾는 Kakao Enterprise가 약 1억 달러에 이르나, SaaS 분야 기업은 규모가 매우 작음
 - Gong, Eightfold, Scale AI 등 미국 기업의 규모가 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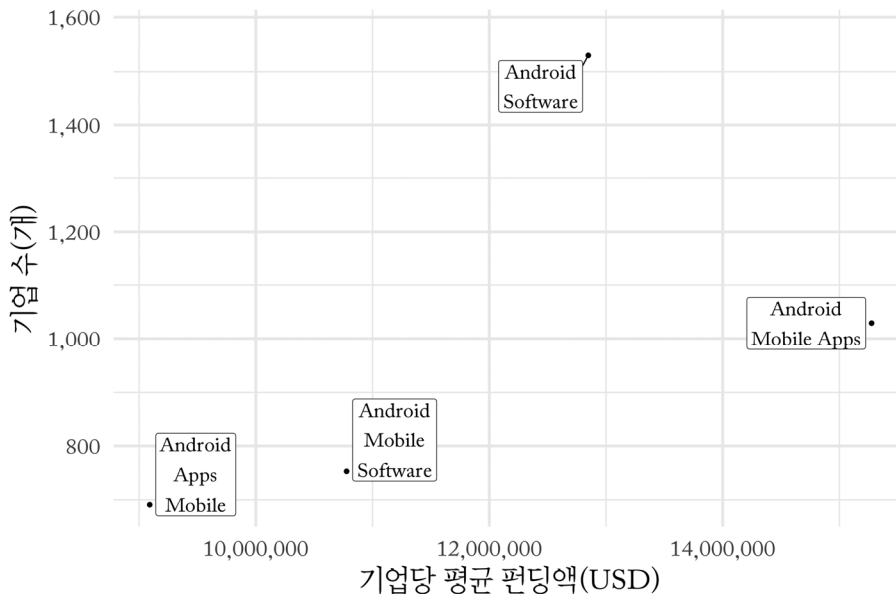
[그림 13]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 최상위 기업 펀딩액



나. iOS

- (개관) iOS 분야에서는 Android Software와 연계된 분야의 기업 수가 많으며, Android Mobile Apps와 연계된 분야의 기업당 펀딩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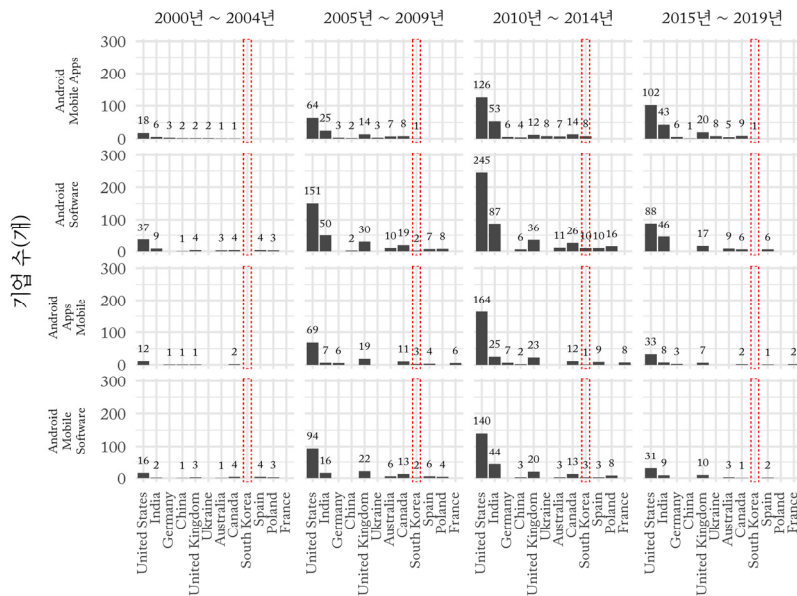
[그림 14] iOS분야의 펀딩 규모와 기업 수



4) 2015년 ~ 2019년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. 이하 동일.

- 국내 기업은 2010년 ~ 2014년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였으나, 2015년 ~ 2019년 비중이 크게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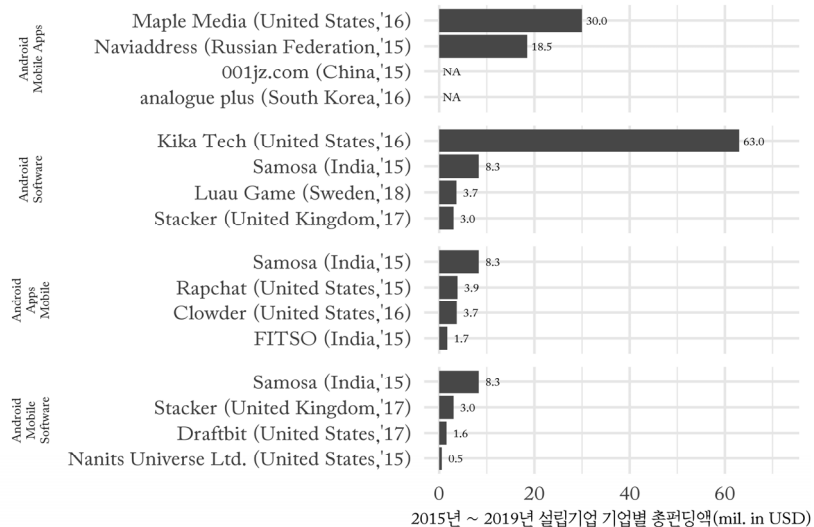
[그림 15] iOS분야의 국가별 주요 스타트업 수



- iOS 분야의 펀딩액 규모는 타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작으며, 2015년 ~ 2019년 국내 기업은 Android Mobile Apps와 연계된 iOS 분야에서 활동 중이나 펀딩액은 공개되지 않음

- 주로 미국 및 인도 기업이 펀딩액 상위에 위치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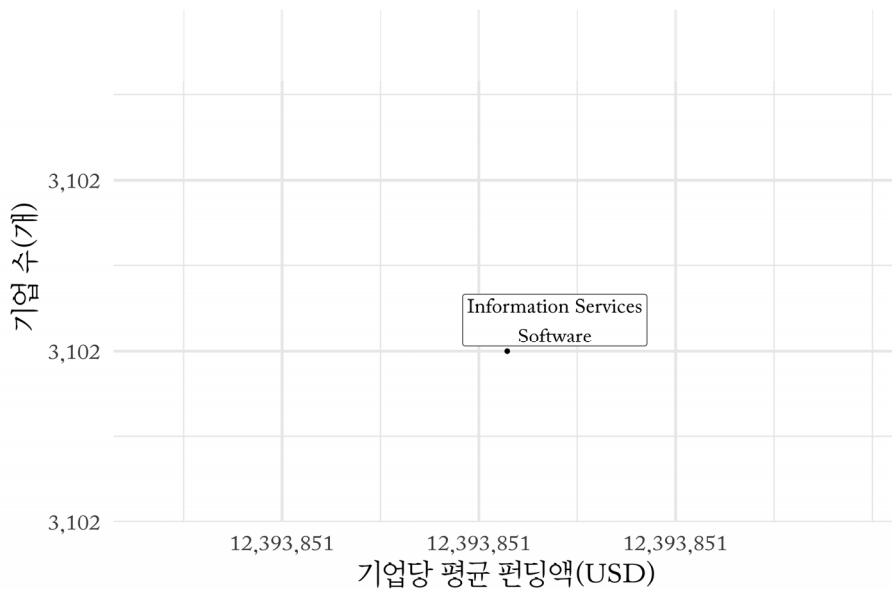
[그림 16] iOS 분야 최상위 기업 펀딩액



다. Information Technology

- (개관) Information Technology 분야는 Information Services 및 SW와 연계된 분야가 있으며, 기업당 평균 펀딩액은 Artificial Intelligence보다 다소 작으며 기업 수는 더 많음

[그림 17] Information Technolog 분야의 펀딩 규모와 기업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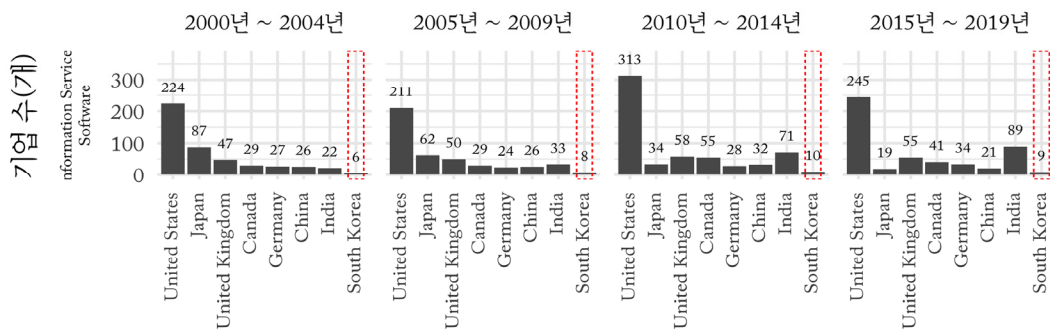


주 : 상세 분야가 단일 분야이므로, 각각 y축과 x축의 기업 수와 기업당 평균 펀딩액도 단일값으로 제시

- 전통적으로 미국, 일본 기업의 수가 많으며, 국내 기업은 최근까지 꾸준히 일정 비중을 유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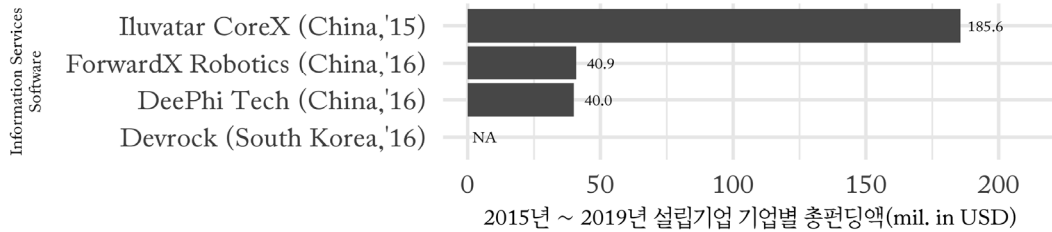
- 미국, 일본, 영국, 캐나다, 독일, 중국, 인도 등이 상위 국가임

[그림 18] 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의 국가별 주요 스타트업 수



- 펀딩액 상위에는 중국 기업이 다수 위치하며, 국내 기업의 펀딩액은 공개되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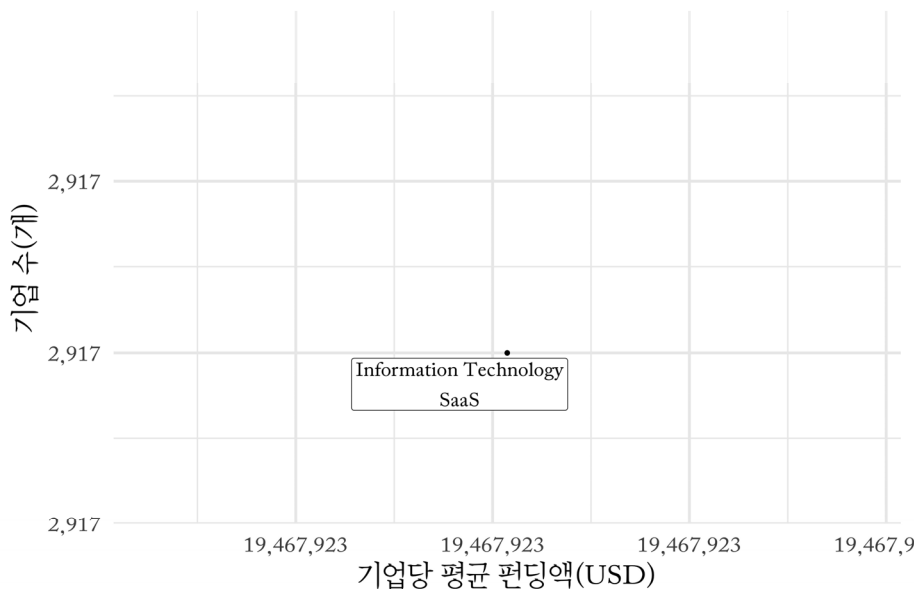
[그림 19] Information Technology 분야 최상위 기업 펀딩액



라. Software

- (개관) Software 분야는 IT(Information Technology) 및 SaaS와 연계된 분야가 있으며, 기업당 평균 펀딩액은 Artificial Intelligence보다 다소 크며, 기업 수도 더 많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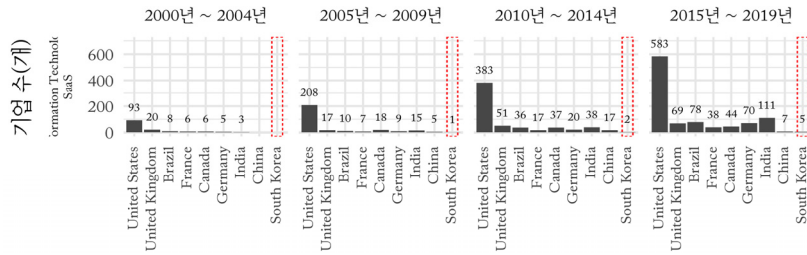
[그림 20] Software 분야의 펀딩 규모와 기업 수



주 : 상세 분야가 단일 분야이므로, 각각 y축과 x축의 기업 수와 기업당 평균 펀딩액도 단일값으로 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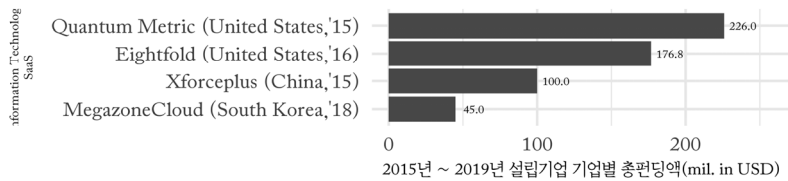
- 국내 기업은 미국, 영국, 캐나다 등은 영미권은 물론 프랑스, 독일, 인도, 중국에 비해서도 비중이 작음

[그림 21] Software분야의 국가별 주요 스타트업 수



- 펀딩액 상위에 주로 미국 기업이 위치하며, 국내 기업의 펀딩액은 최상위 기업 펀딩액의 1/5 수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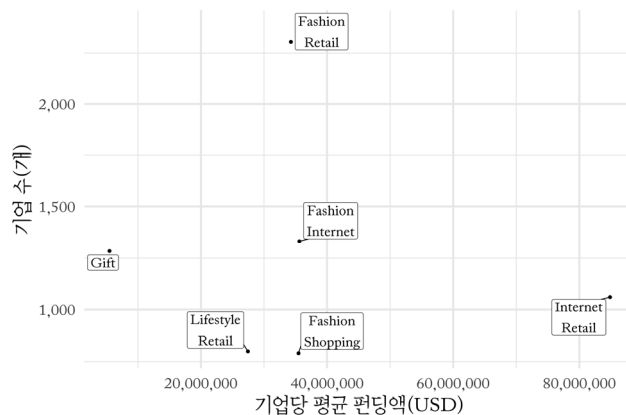
[그림 22] Software 분야 최상위 기업 펀딩액



마. E-commer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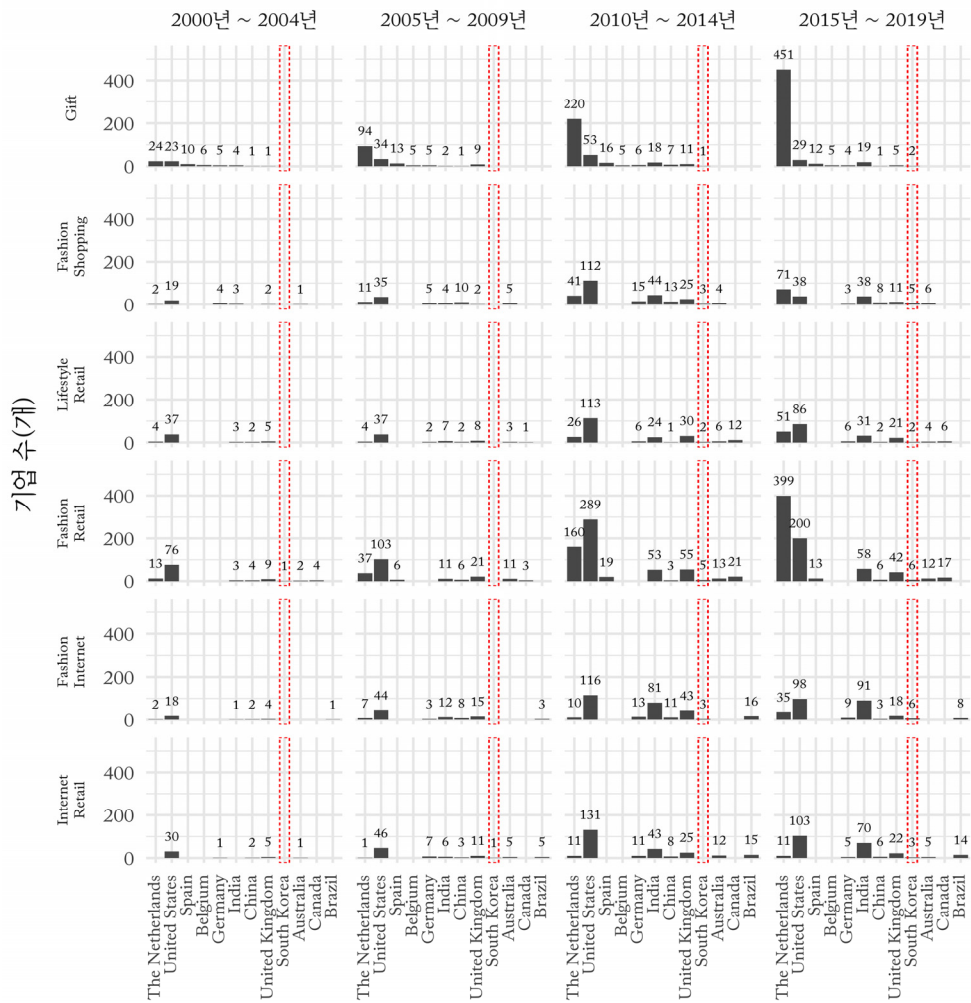
- (개관) E-commerce 분야에서는 Fashion Retail 분야의 기업 수가 많으며, Internet Retail 분야의 기업당 펀딩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
 - Gift, Lifestyle Internet 등은 펀딩 규모가 작은 편임

[그림 23] E-commerce분야의 펀딩 규모와 기업 수



- 국내 기업은 Fashion Shopping, Fashion Retail, Fashion Internet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, 2015년 ~ 2019년 Internet Retail 분야에서도 비중 증가

[그림 24] E-Commerce 분야의 국가별 주요 스타트업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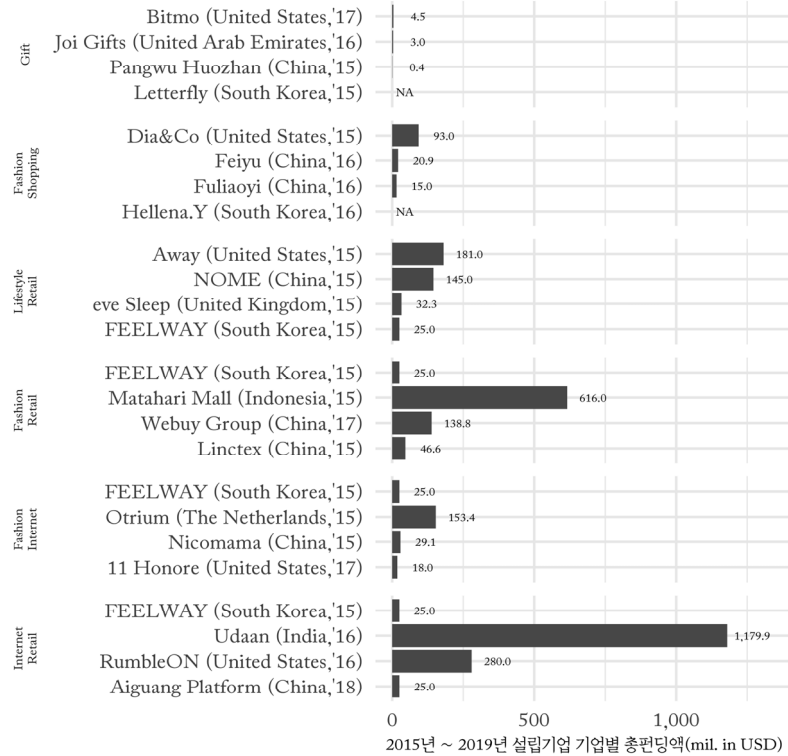


- E-commerce 분야는 미국 이외 인도, 인도네시아, 네덜란드 등 기업의 펀딩액 규모가 크며, 국내 기업의 펀딩액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음⁵⁾

- 펀딩액 상위에는 중국 기업이 다수 위치함

5) 올해 미국 증시에 상장한 쿠팡은 2010년 설립되어, 2015년 ~ 2019년 중 설립 기업이 대상인 본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음. 크런치베이스에서 쿠팡은 서울특별시 소재한 한국(South Korea) 기업으로 분류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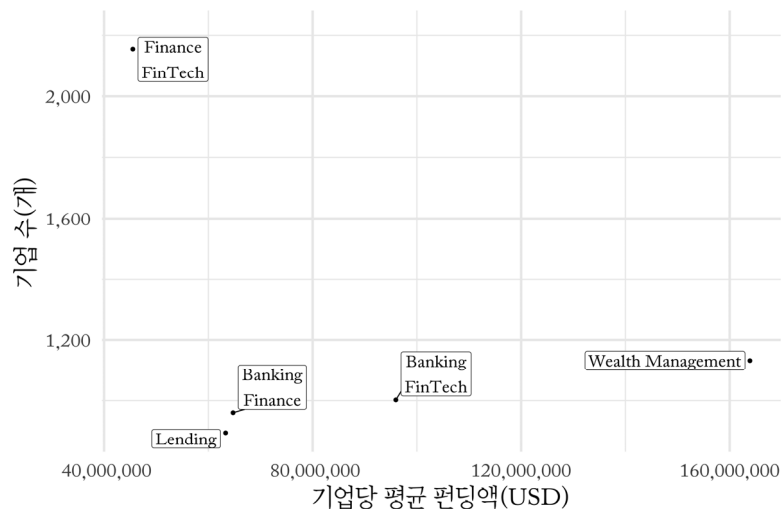
[그림 25] E-Commerce 분야 최상위 기업 펀딩액



바. Financial Service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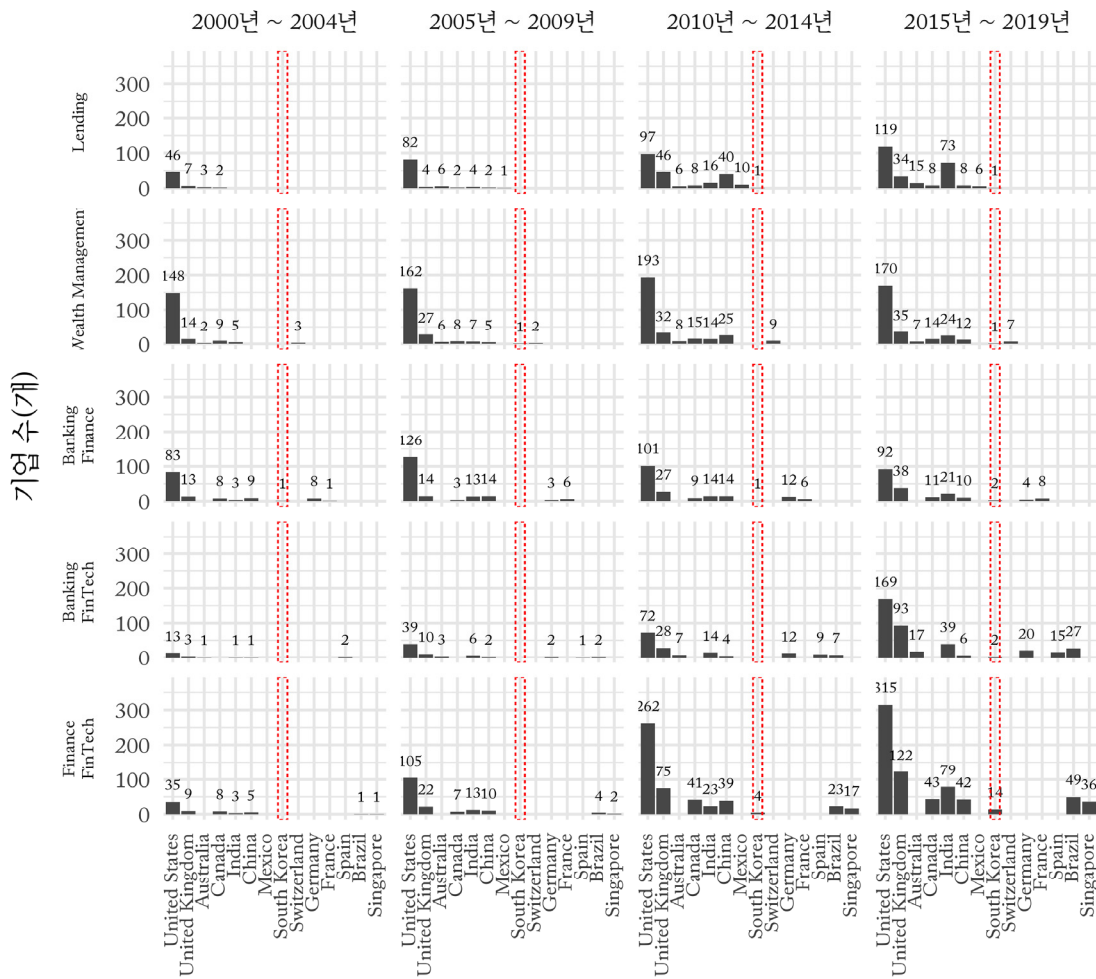
- Financial Services 분야에서는 FinTech 분야의 기업 수가 많으며, Wealth Management 분야의 기업당 펀딩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

[그림 26] Financial Services 분야의 펀딩 규모와 기업 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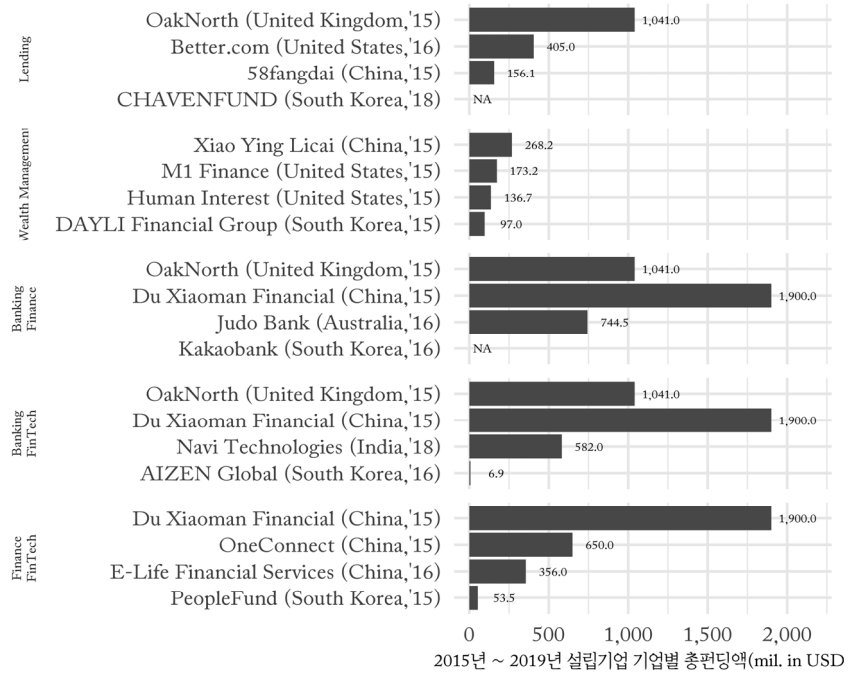
- 국내 기업은 FinTech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, 2015년 ~ 2019년 이 분야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함

[그림 27] Financial Services분야의 국가별 주요 스타트업 수



- 국내 기업은 Kakaobank, DAYLI Financial Group, CHAVENFUND, ALZEN Global, PeopleFund 등이 각 분야를 주도함
 - FinTech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지배가 두드러지며, Wealth Management에서도 중국 기업이 펀딩액 규모 최상위에 위치함
 - 중국 기업 외 영미계 기업이 다수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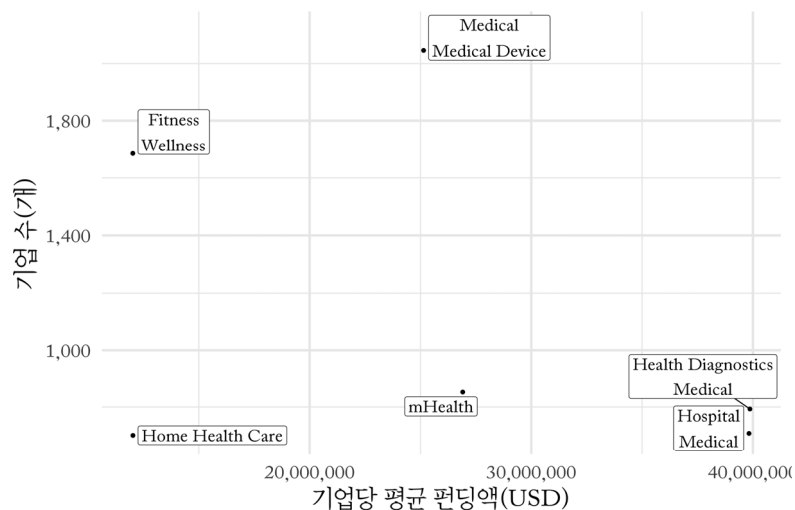
[그림 28] Financial Services 분야 최상위 기업 펀딩액



사. Health Car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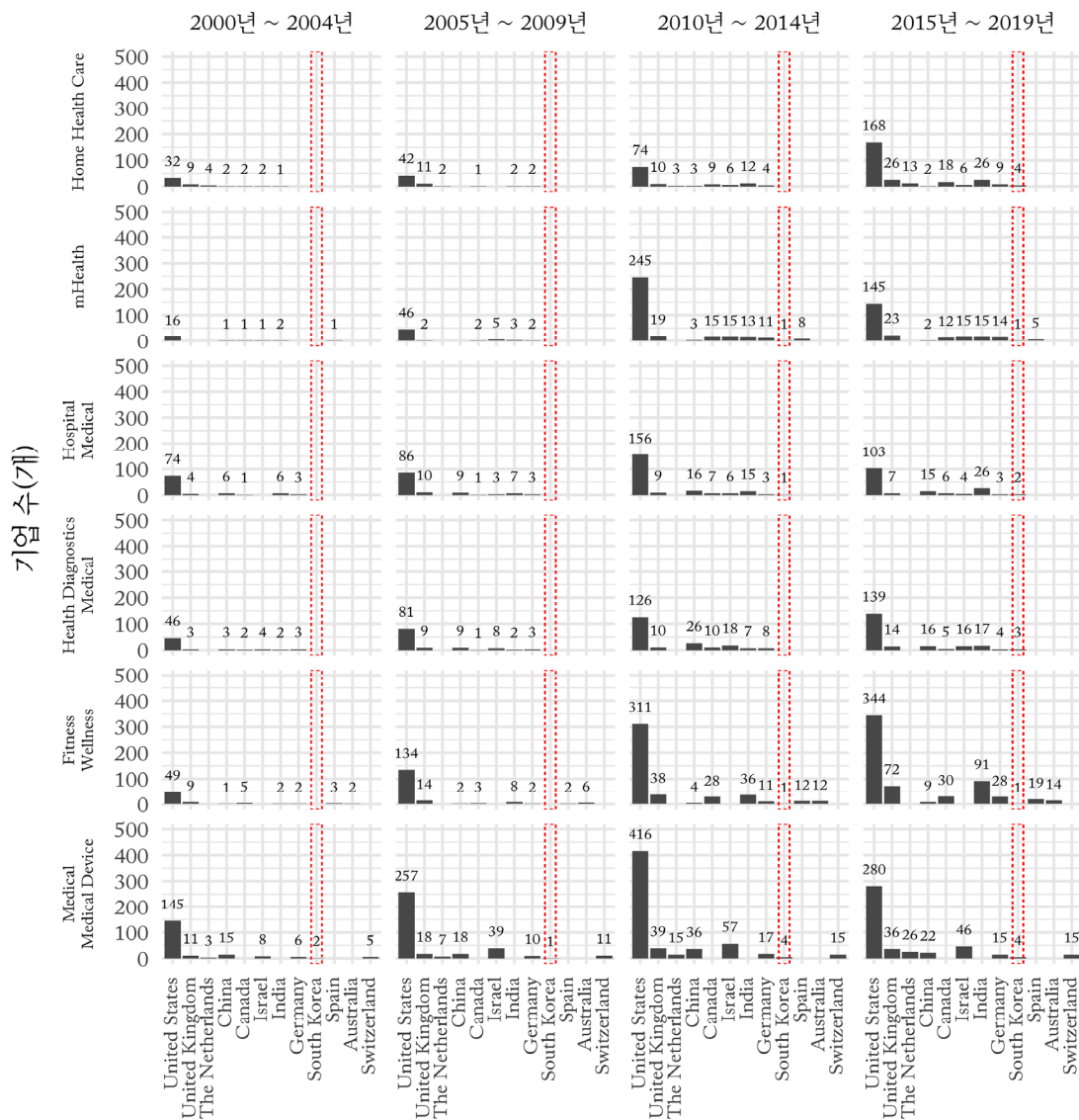
- (개관) Health Care 분야에서는 Fitness, Wellness와 관련된 분야 및 Medical, Medical Device(의료장비) 관련 분야의 기업 수가 많으나, 기업당 펀딩 규모는 Health Diagnostics(건강진단) Medical, Hospital Medical 분야의 규모가 큼

[그림 29] Health Care 분야의 펀딩 규모와 기업 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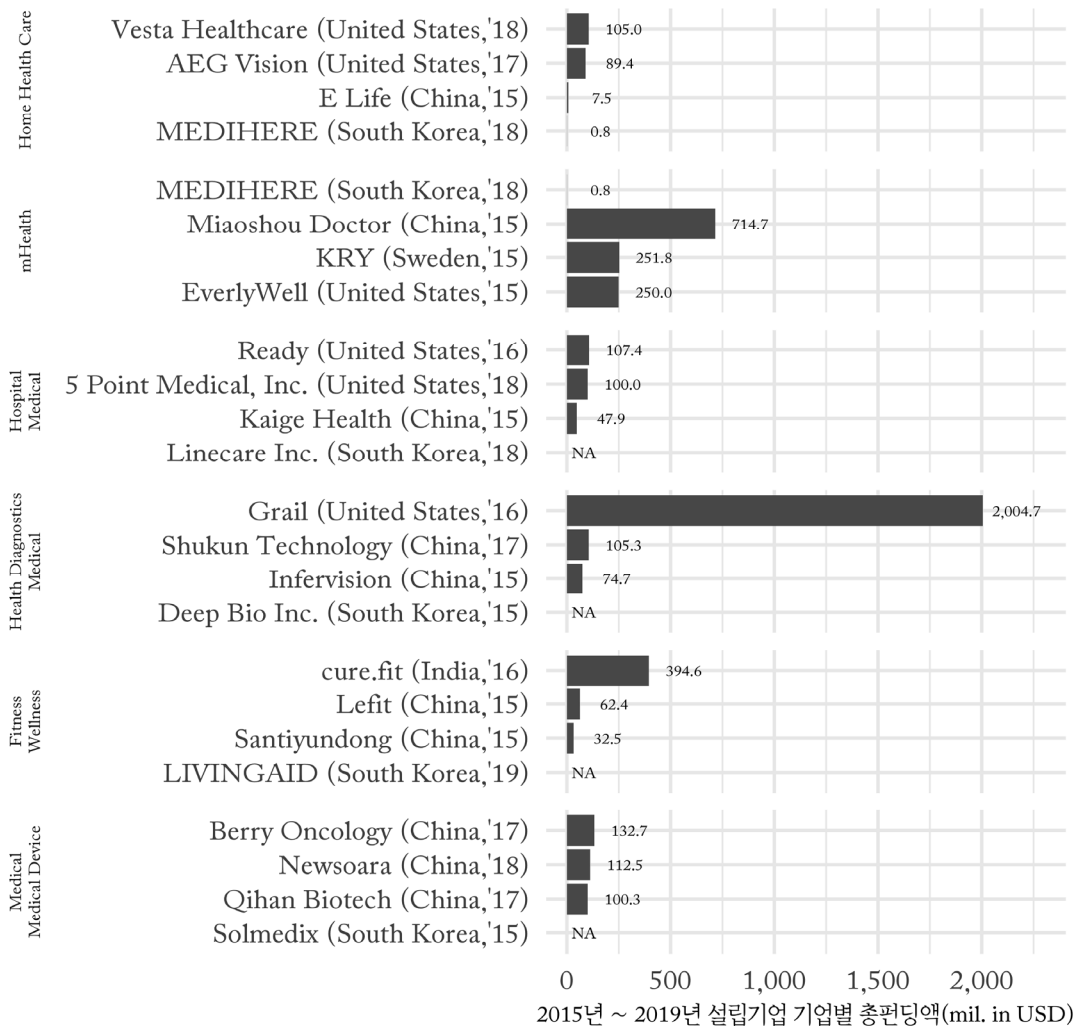
- 국내 기업은 Medical Device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, 2015년 ~ 2019년 6개 분야 모두에서 활동 중
- 2015년 ~ 2019년 펀딩액 규모가 큰 Health Diagnostics Medical, Hospital Medical 분야에도 진출

[그림 30] Health Care 분야의 국가별 주요 스타트업 수



- 펀딩액 규모는 Home Health Care나 mHealth의 경우 최상위 기업 대비 1% 수준에 못 미침
 - Hospital Medical, Health Diagnostics Medical, Fitness Wellness, Medical Device 등의 분야는 펀딩액이 공개되지 않음
 - 2016년 설립된 미국 Grail의 경우 펀딩액 규모는 20억 달러를 상회함
 - Hospital Medical, Health Diagnostics Medical을 제외한 여타 분야에서 중국 기업이 약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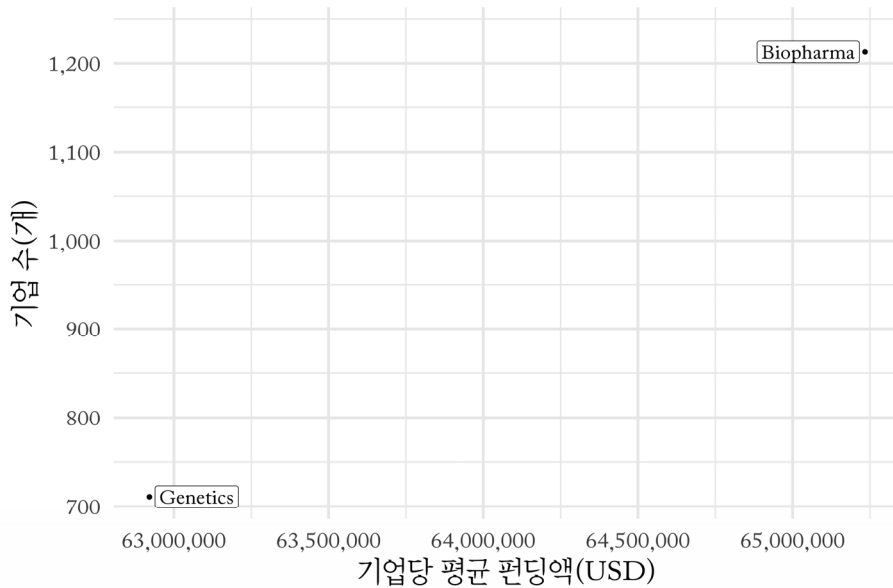
[그림 31] Health Care 분야 최상위 기업 펀딩액



아. Biotechnolog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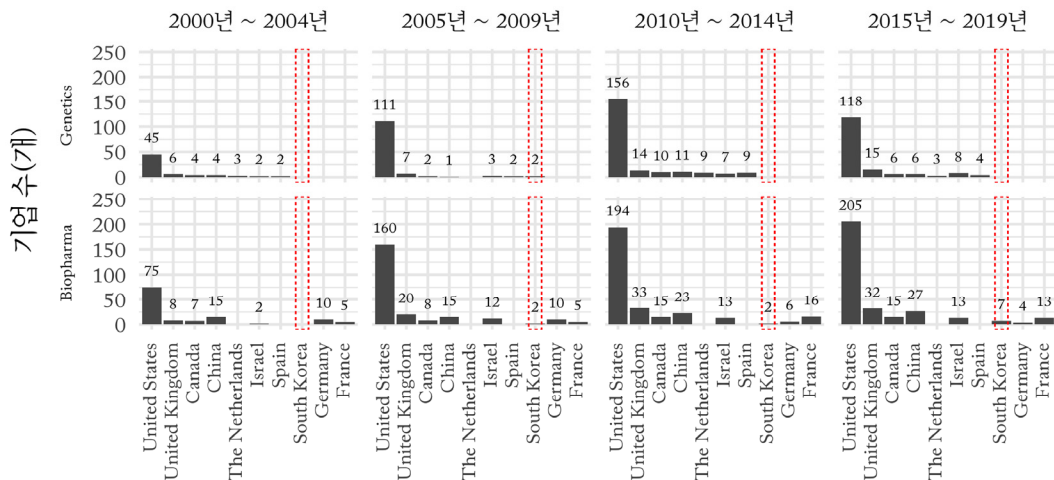
- Biotechnology 분야는 Biopharma와 Genetics로 양분되며, Biopharma와 연계된 분야가 기업 수도 많고 평균 펀딩액도 큼

[그림 32] Biotechnology 분야의 펀딩 규모와 기업 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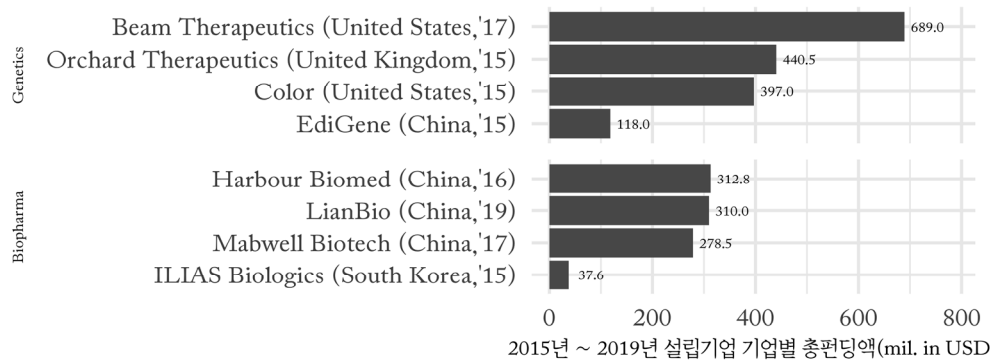
- 한국은 2015년 ~ 2019년 중국과 더불어 Biopharma에서 약진하고 있는 추세임

[그림 33] Biotechnology 분야의 국가별 주요 스타트업 수



- Biopharma의 상위권은 중국 기업이 석권하고 있으며, 국내 기업의 펀딩액은 중국 기업 펀딩액의 1/10 수준임
- Genetics 분야는 미국 기업이 석권하고 있으며, 국내 기업 중 펀딩액이 공개된 기업은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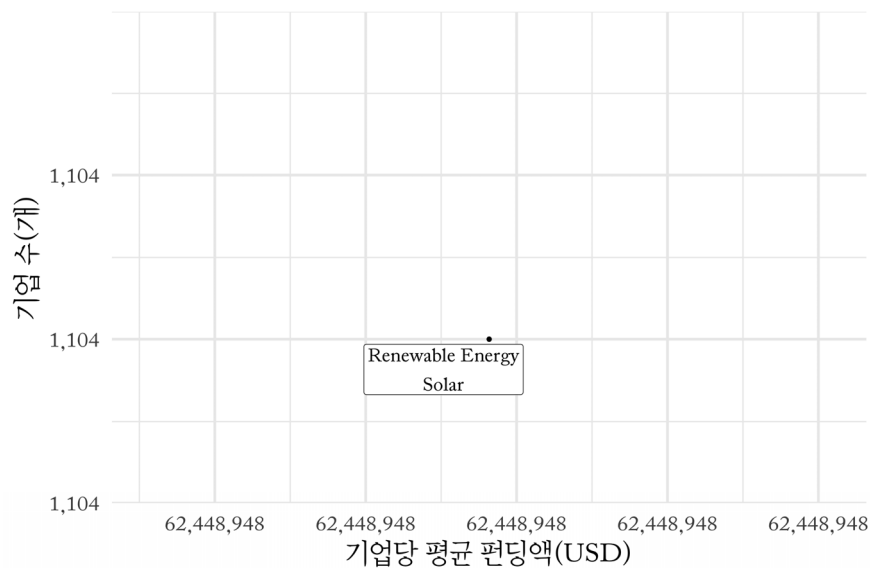
[그림 34] Biotechnology 분야 최상위 기업 펀딩액



자. Energy

- Energy 분야는 Renewable Energy와 Solar와 연계된 분야가 있으며, 기업당 평균 펀딩액 규모는 Biotechnology에 버금가는 수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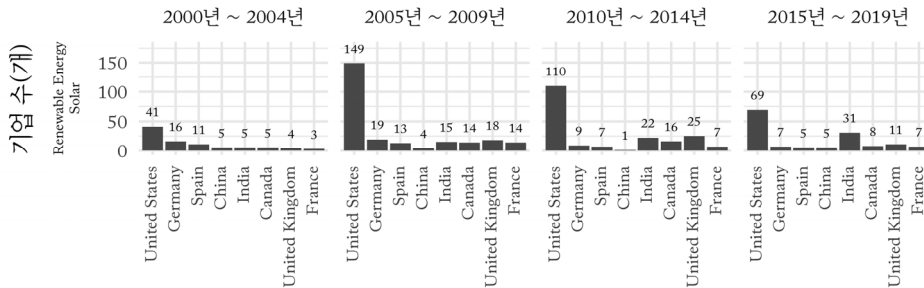
[그림 35] Energy 분야의 펀딩 규모와 스타트업 수



주 : 상세 분야가 단일 분야이므로, 각각 y축과 x축의 기업 수와 기업당 평균 펀딩액도 단일값으로 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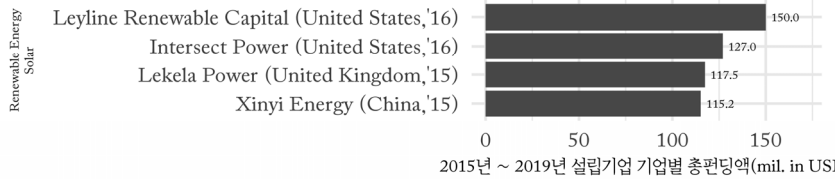
- 국내 기업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 상위권에 포함되지 않음

[그림 36] Energy 분야의 국가별 주요 스타트업 수



- 최상위권에 영미권 기업이 위치하며 중국 기업도 추격 중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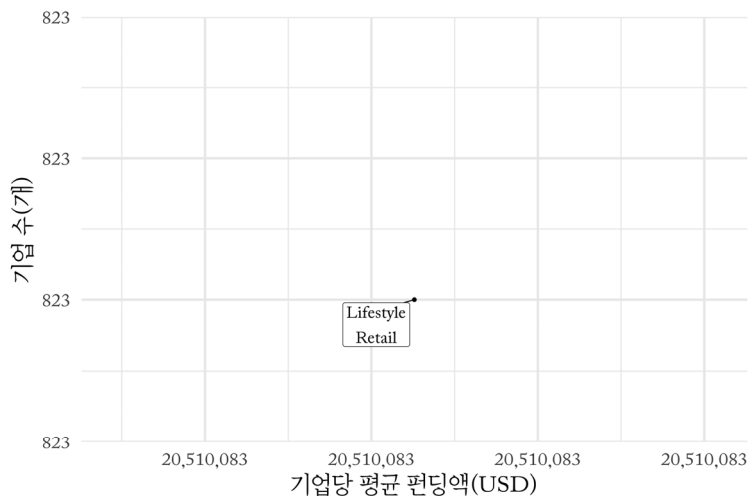
[그림 37] Energy 분야 최상위 기업 편당액



차. Fashion

- Fashion 분야는 Lifestyle 및 Retail과 연계된 분야가 있으며, 기업 수는 작은 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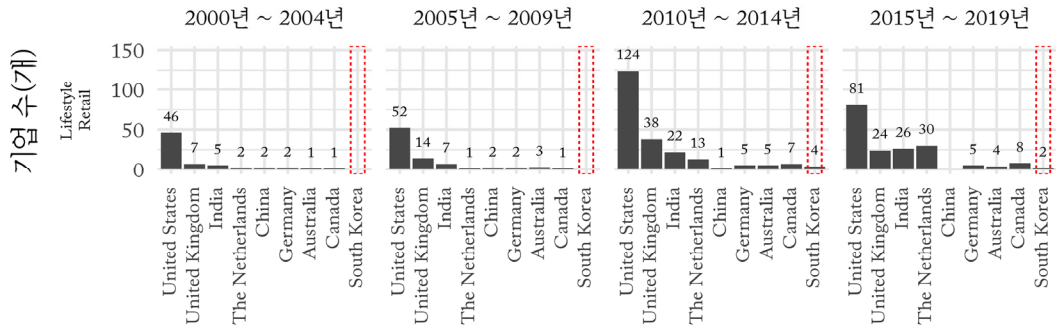
[그림 38] Fashion 분야의 편당 규모와 기업 수



* 주 : 상세 분야가 단일 분야이므로, 각각 y축과 x축의 기업 수와 기업당 평균 편당액도 단일값으로 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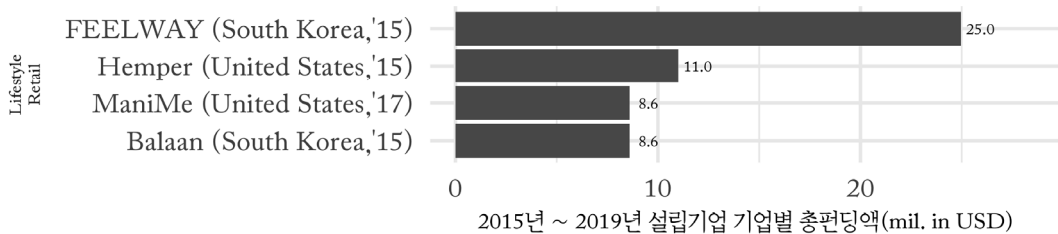
- 미국, 영국, 네덜란드 등의 기업이 주도하며, 국내 기업은 2010년 ~ 2014년에 비해 2015년 ~ 2019년 비중이 감소함
 - 중국 기업의 비중은 미미한 편임

[그림 39] Fashion분야의 국가별 주요 스타트업 수



- 타 분야 대비 펀딩액 규모는 크지 않으나 국내 기업이 최상위에 위치함

[그림 40] Fashion 분야 최상위 기업 펀딩액



4. 결론

- AI, iOS(Android), SW와 같이 글로벌 스타트업의 활동이 왕성한 분야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비중은 답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 분야 스타트업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
 - 스타트업 풀(pool)이 작아 이스라엘과 같이 다양한 소규모 스타트업을 충분히 양성해야 함
 - ML, SaaS 등의 개별적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된 공공투자 계정을 만들어 적극 지원
 - AI, iOS, ML, SaaS 등의 전문인력 양성 촉진

- IT 분야는 기업 수로는 타 분야 대비 국내 스타트업의 비중이 큰 편이나, 중국 기업과 비교해서는 펀딩액 규모에서 차이가 커 적극적인 스케일업 필요
 -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에서 주목 받을 수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 육성에 주력
 - B2B 분야 기저기술(deep tech) 스타트업 육성
- 국내 스타트업은 Medical Device를 중심으로 Health Care, Biopharma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, 중국 기업의 부상과 비교하여 규모면에서 미미함
 - 글로벌 스타트업 중 Health Care 및 Biotechnology 분야의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, 이 분야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스케일업 촉진 필요
- Energy 분야의 경우 “그린 뉴딜”과 같은 정책 추진에도 Renewable Energy, Solar와 같은 분야의 주목할 만한 국내 스타트업이 없는 실정
 - Energy 분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, Energy 분야는 미국의 스타트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의 진출 또는 한미 간 기술 협력에 기반한 Energy 스타트업 육성 추진
- Financial Services 분야는 국내 스타트업이 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필요
- Fashion 분야는 국내 스타트업이 Lifestyle, Retail 분야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, 기존 산업과 스타트업의 접목 가능성을 모색
 - ICT 분야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, 전통적인 산업과 스타트업의 결합을 적극 발굴, 육성할 필요가 있음
- 분야별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위상 및 수준을 지속적으로 측정, 평가하기 위해서는 크런치베이스와 같은 체계화된 스타트업 DB의 구축이 필요
 - ICT, 바이오/의료, 기계/장비, 화학/소재, 유통/서비스와 같은 전통 제조업 방식의 벤처기업 업종 분류를 신산업에 적합한 형태로 개편해야 함

참고자료

한국벤처캐피탈협회(2021), 「KVCA 2021 Yearbook」, (2021.4.30).

Robert McGill, John W. Tukey and Wayne A. Larsen(1978), “Variations of Box Plots.”
The American Statistician, Vol. 32, No. 1, pp. 12-16.

Startup Genome(2018), 「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7」, (2018.4.17).

<https://www.crunchbase.com/organization>.

KOSI 중소기업 포커스

발행인 : 오동윤

편집인 : 이동주

발행처 : 중소기업연구원

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(신대방동 686-70) (07074)

전화: 02-707-9800, 팩스: 02-707-9894

홈페이지: <http://www.kosbi.re.kr>

인쇄처 : 사단법인 나눔복지연합회

-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(연구진)의 견해이며, 중소기업연구원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